

# 현대 한국 드라마에 나타난 원혼서사의 신화론적 의미작용

박진희\*  
홍재범\*\*

〈노무사 노무진〉(MBC, 2025)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롤랑 바르트의 신화론을 이론적 틀로 삼아, 전통 원혼서사가 수행해 온 신화적 의미작용이 현대 한국 사회의 노동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변주되고 재구성되는지를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전통 원혼서사에서 ‘이상사’는 공동체 질서의 균열을 설명하고 관리하는 신화적 기호로 기능해 왔으나, 현대 원혼서사에서는 산업재해, 과로사 등과 같이 ‘지나치게 정상화된 죽음’이 새로운 대상 언어활동의 기표로 제시되어 새로운 신화적 기호로 기능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죽음들이 법과 제도, 통계와 관행 속에서 ‘지나치게 자연스럽게’ 설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오히려 비가시화되는 역설적 조건에 주목한다. 바르트가 말한 신화의 의미작용은 고정된 내용이 아니라 역사적 조건 속에서 기표와 기의가 결합하고 재배열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해당 드라마가 원혼이라는 전통적 기표를 유지한 채,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폭력과 책임의 분산을 새로운 기의로 덧입힘으로써 신화의 미끄러짐을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현대 원혼서사가 과거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자연화를 재생산하기보다, 사회적 애도와 책임 질문의 장을 형성하는 새로운 신화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주제어** 신화론, 〈노무사 노무진〉, 원혼서사, 사회적 애도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교신저자

## 1. 서론

최근 한국 대중문화에서 무속은 단순한 전통 종교나 민속 의례의 재현을 넘어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불평등을 드러내는 서사 장치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특히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 등 영상매체에서는 무속의 의례·신령·빙의 등 전통적 요소를 사실적으로 복원하기보다는, 이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변형하여 사회적 의사소통의 통로로 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무속의 종교적 교리나 의례 체계에 충실하기보다는, 민속문화적 상징성과 이야기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김성례(2018)<sup>1</sup>는 무교(巫敎)가 강한 민속문화적 성격을 지니면서도, 신들림을 연행하는 무당, 만신, 심방뿐만 아니라, 일상적 문제를 상담하는 단골 신도와 이들을 돕는 신령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종교 현상을 강조한다. 한국 문화의 고유한 표현을 빌려 덧붙이자면, 무교의 신앙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인간에게 복을 시혜하는 신령의 ‘은덕’과 이에 보답하는 인간의 ‘정성’에 달려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며, 인간과 신령, 무당과 만신이 함께 굿 제의에서 만나 인간의 문제를 풀다는 ‘인본주의적’ 관점을 견지하는 종교문화이다.<sup>2</sup> 대중문화에서 재현되는 ‘무속’은 종교로서의 무교라기보다, 상징과 내러티브로서의 무속에 가까우며, 무속에서 말하는 ‘원혼’은 복합적인 분석을 요하는 심층 기호로 작용한다. 또한 드라마 속 무속인은 현실의 사회문제와 감정 구조를 드러내는 서사적 촉매이자, 원혼의 억눌린 목소리를 가시화하는 인본주의적 매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교’가 아닌 ‘무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분석 대상을 종교적 신앙체계가 아닌 문화적 재현과 민속적 의미망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원혼의 발생 조건과 해원의 구조에 대한 기존 연

1 김성례(2018), 『한국 무교의 문화인류학』, 소나무.

2 김성례(2018), p. 25.

구는 다음과 같다. 이영미(2014)<sup>3</sup>는 유달리 무당의 비중이 높은 영화가 많이 등장하였던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한국 영화 속 무당의 표상을 고찰한다. 이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무당이 공포스럽고 그로테스크한 존재로 재현되지 않고, 집단적·역사적 상처를 위로하고 원혼의 한을 해원하는 존재로 변모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다만 분석 대상의 한계로 이후 대중문화 환경의 변화 속에서 원혼서사가 어떻게 재구성되는지까지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서유석(2017)<sup>4</sup>은 전통 원혼설화가 단순한 귀신담이 아니라, 억울한 죽음을 공동체 차원에서 해원하고 애도하는 서사 구조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원혼의 등장이 공동체가 은폐하거나 방기했던 폭력을 다시 호출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원귀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기억을 환기하는 매개로 기능함을 확인한다. 그러나 논의의 중심이 설화 텍스트에 머물러 있어 현대 대중문화 서사에서 원혼이 수행하는 변형된 기능에 대한 논의까지는 충분히 확장되지 않는다. 이채영(2018)<sup>5</sup>은 영화 <검은 사제들>과 <곡성>과 같은 퇴마 소재의 영화에서 '빙의-전이·확장-퇴마'의 과정을 공통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원귀 서사에 나타나는 해원과 애도의 구조와 그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서사 문법을 형성하는지 분석한다. 특히 '가해자-희생자-구원자'의 삼각 구도와 악을 외부자로 형상화하는 방식은 전통 무속의 요소를 차용하면서도 현대적 공포와 윤리적 질문을 생산하는 핵심 기제로 분석된다. 그러나 분석의 초점이 퇴마와 악의 제거에 맞춰져 있어 원혼이 해원 이후에도 남

3 이영미(2014), 「공포에서 해원으로: 1980년대 전후 영화 속 무당 표상과 사회적 무당의 탄생」, 『민족문화연구』 6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4 서유석(2017), 「원귀 서사에 나타나는 해원과 애도의 구조, 그 의미와 한계: <신기무 전설>과 <의적 강목발>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문화연구』 Vol.0 No.55, 우리문화회.

5 이채영(2018), 「영화 <검은 사제들>과 <곡성>에 나타난 퇴마 소재 스토리텔링 기법과 악의 이미지 연구: 전통 무속 요소와 오컬트 장르 특질의 융합적 재현 양상 분석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Vol.74, 중앙어문학회.

기는 사회적 질문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차화된다. 김정은(2023)<sup>6</sup>은 <아랑설화>와 <재벌집 막내아들>을 통해 원혼이 죽음 이후 다시 이승으로 회귀하여 억울함을 발화하고, 이를 공적 기제가 수용함으로써 해원이 완성되는 구조를 ‘죽음-회귀’의 서사 구조로 제시한다. 특히 개인의 억울한 죽음이 개인적 복수로 환원되지 않고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성찰하게 하는 장치로 재구성된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전통 원혼서사의 핵심을 ‘억울한 죽음의 사회화’에서 찾고 있으며, 현대 대중문화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밝힌 원혼서사의 구조적 통찰을 계승하되, 원혼이 ‘해결을 촉발하는 존재’라는 차원을 넘어,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폭력이 어떻게 신화의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거나 폭로되는가’라는 의미작용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자 한다.

전통 원혼서사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도 형식적으로는 지속되고 있으나, 그 의미를 구성하는 기준과 내용은 자본주의 체제에 맞추어 새로운 방식으로 변형되고 있다. 이는 21세기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통과의례의 기준이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산업화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성인으로서의 ‘통과’는 혼인이나 출산보다 경제적 독립, 직업 안정, 주택 소유, 금융 신용 등 자본주의적 지표를 중심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은 사회적으로 ‘미완의 존재’로 인식되기 쉽다. 그 결과 현대 대중문화 속 원혼 서사는 전통적 혼인관계나 후사 문제에서 발생하는 결핍보다, 사회적·경제적 실패에서 비롯된 결핍을 중심으로 재현되고 있다. 현대 대중문화 속 원혼들은 산업재해, 부당 해고, 직장 내 괴롭힘, 과로사 등 현대 자본주의 노동 구조에서 비롯된 이상사(異常死)를 맞이하고, ‘안정적 고용, 주택 소유, 부채 청산’과 같은 자본 중심의 통과의례를 달성하지

6 김정은(2023), 「‘죽음-회귀’의 서사 구조로 본 사회적 해원의 의미: <아랑 설화>와 <재벌집 막내아들>을 중심으로」, 『생사학연구』 Vol. 4,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

못한 것으로 인해 원한을 품게 된다. 이로 인해 현대식 ‘통과의례’를 달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노동 중 사망, 산업재해, 부당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은 더 이상 개인적 불운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통과의례를 좌절시키는 구조적 폭력의 징후로 제시되며, 원혼을 탄생시키는 주요한 서사적 동인으로 기능한다. 즉, 전통 원혼서사의 형식은 유지되지만, 그 기의는 개인적 원한에서 사회구조적 결핍으로 이동한다. 이는 바르트가 신화의 작동 방식으로 설명하는 ‘기의의 미끄러짐’이 일어나는 전형적인 사례로, 전통 원혼이 지니던 의미는 형식만 남긴 채 비워지고 그 자리를 자본주의 구조가 만들어낸 새로운 기의가 점유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MBC, 2025)에서 특히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 원혼은 특정 성별이나 연령, 개인적 관계에 한정되지 않으며,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안전과 존엄을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의 집단적 형상으로 재구성된다. 주인공 노무진은 원혼의 목소리를 듣고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노무사로 등장한다. 그에게 원혼들의 한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는 보살은 ‘전태일’ 열사로, 1970년대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적 인물이자, 현실과 초월 세계를 잇는 매개자로 설정된다. 시대를 구분함에서 사건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노동운동사에서 시대구분을 할 만한 사건을 꼽으라면 단연 ‘전태일 분신사건 이전과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전태일 분신사건은 전태일 개인의 사건이기에 앞서, 당시 한국 사회의 모순이 응집되어 폭발한 하나의 민중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와 농민, 도시빈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sup>7</sup>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던 전태일 보살은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개인적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노동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을 드러나게 한다.

전통적으로 원한을 해소하고 복을 빌어주는 무속은 현대 대중문화 속

7 원희복(2015), 「(15) 전태일 분신 평화시장… 한국 노동운동의 순교자 ‘노동의 가치’를 일깨우다」, 주간경향 웹페이지, 사회 광복 70년 역사르포, <https://weekly.khan.co.kr/article/201506021355311> (접속일: 2025. 12. 17.).

에서 사회구조적 불의의 고발로 그 기능이 확장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노무사 노무진〉에 나타난 원혼의 역할과 의미를 탐구하며 전통 원혼 서사의 형식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재배치되고 의미화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중문화 속 무속 재현이 어떻게 종교적 실천을 넘어 사회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지 그 방식을 고찰한다.

## 2. 원혼의 형성 조건과 신화적 의미구조

전통적인 무속 의례 가운데에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존재의 ‘한’(恨)을 풀어주어 사회질서를 회복하려는 목적을 지닌 굿들이 존재한다. ‘한’(恨)은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에 깊이 자리한 정서로,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 자유의 부재와 부당한 박탈로 인한 고통, 그리고 이를 표출할 수 없어 더욱 깊어지는 무력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속 의례는 단순한 주술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애주기와 사회적 규범을 재확인하는 의례로 기능한다. 특히 굿에서 다루어지는 귀신은 이승에서의 삶이 불행한 자에 집중된다. 인생관이나 생활태도 등이 아니라 통과의례를 무리 없이 거쳐서 자녀를 두었는가 하는 것이다. 예컨대 결혼식을 못 올렸다면지 결혼을 했어도 자식을 못 낳았다든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또 죽음의 방식이 ‘정상사’와 ‘이상사’로 구별될 수 있다.<sup>8</sup> 정상사는 통과의례를 거친 노인의 죽음, 특히 아들을 낳아 대를 이은 상태에서의 자택 내 평온한 죽음을 의미한다. 이상사는 단명, 미혼 상태의 남녀의 죽음, 자식이 없어 대를 잇지 못한 이의 죽음, 사고로 인한 죽음, 자신의 집이 아닌 타지에서의 죽음 등을 의미한다. 자살과 타살은 가장 위험한 이상사인데, 일반적인 죽음을 맞이한 영혼보다 한

— www.kci.go.kr

8 최길성(1999), 『새로 쓴 한국무속』, 아세아문화사, p.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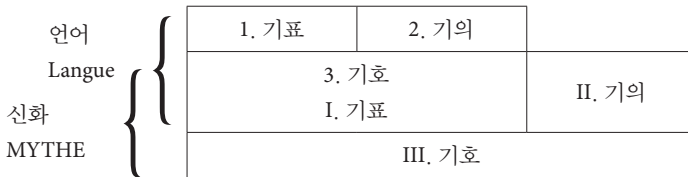
이 더 커 원혼으로 나타날 확률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상사를 당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서사화되어 원혼설화로 전승된다. 원혼설화는 건드릴 수 없는 일 때문에 죽은 원혼이 생전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원귀 또는 동물(상사뱀, 족제비), 사람의 형상을 취하여 직접 대면하거나 현몽, 매개물을 통해 암시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이야기이다. 원혼이 되어 의사를 전달한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자기 주장을 관철할 만한 처지에 있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원혼이 되는 존재는 사회적 약자 또는 주변인이었음을 시사한다.<sup>9</sup>

바르트에게 있어 신화는 사회적 통념이나 가치, 신념, 이데올로기 등과 같이 한 문화가 그것이 갖는 사회적 현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이다. 원시 사회의 신화가 천지창조의 신들과 하늘과 땅, 물과 불, 동물과 사람, 선과 악에 관한 것이었다면, 보다 세련된 현대의 신화는 부와 명예, 출세, 남성성과 여성성, 가족, 결혼, 행복, 국가, 경찰 등에 대한 가치체계나 믿음, 신념 등과 같은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바르트는 신화를 ‘상호 연결된 함축의미적 개념의 연쇄’로 생각한다. 또한 그에게 신화는 1단계 의미작용 체계가 촉발하는 상호 연관되는 연쇄적 함축의미(개념의 연쇄)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낸다.<sup>10</sup> 바르트 신화론의 핵심은 신화란 그것이 오래된 것이든 새로운 것이든 특정 시기에 지배집단으로 자리 잡은 특정 사회 계급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신화의 형태와 개념은 반드시 이러한 역사적 발생동기를 수반하고 있지만, 신화가 작동하는 주요 방식은 이 같은 역사적 동기를 은폐하고 이것을 일반적인 상식으로 통용되게 하는 데 있다. 즉, 신화는 그것이 전달하는 의미를 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사실로 제시함으로써 그것의 역사적 동기를 은폐하고, 결과적으로 신화가 갖는 정치적 효과(이데올로기적 효

9 강진욱, 「원혼설화」,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웹페이지, <https://folkency.nfm.go.kr/topic/%EC%9B%90%ED%98%BC%EC%84%A4%ED%99%94>(접속일: 2025. 12. 19.).

10 박정순(1995), 『대중매체의 기호학』, 나남, p. 190.

파)를 은폐하게 된다.<sup>11</sup> 신화는 사물들을 부인하지 않으며, 반대로 신화의 기능은 사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다만 신화는 사물들을 정화하고, 사물들을 정당화하고, 사물들을 자연 속에 그리고 영원 속에 세우고, 그 사물들에다 설명의 명백함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의 명백함을 부여한다.<sup>12</sup> 이를 통해 전통 원혼서사는 ‘비합리적 민간신앙’이나 ‘미신’이 아니라, 전통사회가 사회적 질서와 균열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신화적 언어임을 알 수 있다. 원혼서사는 ‘어떤 죽음이 공동체를 불안하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당대 사회의 설명 체계였으며, 이 과정에서 통과의례의 실패, 발화권의 부재, 사회적 보호의 상실이라는 역사적 조건은 은폐된 채, 공동체 규범의 회복 필요성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즉, 신화는 지배질서의 폭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이를 초월적 언어로 전환함으로써 사회적 불안을 관리하고 도덕적 질서를 재확인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화에는 두 개의 기호학 체계가 있는데, 그 한 체계는 다른 체계에 비해 상자 밖으로 벗어나 있다. 언어학적 체계, 즉 언어를 대상 언어활동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화가 자기 자신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탈취한 언어활동이기 때문이다.<sup>13</sup> 그리고 신화 자체는 그 언어 속에서 첫 번째 언어에 대해 이야기되는 두 번째 언어,

11 박정순(1995), p. 193.

12 롤랑 바르트 지음,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역(1997), 『현대의 신화』, 동문선, p. 315.

13 롤랑 바르트 지음,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역(1997), p. 272.

‘메타 언어활동’이다. 대상 언어활동의 기호 전체가 메타 언어활동의 ‘기표’로 탈취되고 있다.<sup>14</sup> 이러한 표에 의하면, 전통 원혼서사에서의 대상 언어활동의 기표는 ‘이상사’로 표현되는 구체적 사건이자 상태이다. ‘이상사’라는 기표가 공동체 안에서 불러오는 기의는 ‘억울함, 부당함, 정의의 결여, 질서의 균열’과 같은 사회적 판단 차원의 기의이다. 이때 기표와 기의가 결합한 대상 언어활동에서의 기호는 ‘사회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이상한 죽음’, ‘공동체 질서에 균열을 발생시키는 문제적 죽음’이다. 이러한 언어적 의미작용이 신화의 기표가 될 때, 1단계의 ‘사회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이상한 죽음’, ‘공동체 질서에 균열을 발생시키는 문제적 죽음’이라는 기호는 그대로 신화의 기표가 되는데, 이 기표는 역사적·구조적 원인을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형식’으로 작동한다. 이 기표에 결합하는 신화의 기의는 ‘이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억울함은 해소되어야만 한다’, ‘공동체는 정의를 회복해야만 한다’와 같은 ‘공동체 규범 회복의 필요성’이라는 개념이 된다. 이때 기표와 기의가 결합한 메타 언어활동에서의 기호가 바로 ‘원혼’이며, 이는 ‘사회 질서의 균열을 설명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화적 기호’로 기능한다.

결국 정상사와 이상사의 구분, 그리고 원혼서사의 반복적 구조는 원혼이 특정한 사회적 위치를 점유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드러내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해석이 가능하다. 사회의 지배계층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회구조와 권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화를 단순한 이야기나 관습의 차원이 아니라, 의미작용의 체계로 활용한다. 바르트에 의하면, 신화는 지배계층의 이데올로기를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장치가 아니라, 역사적·정치적 선택의 산물을 자연적이고 당연한 사회질서로 전환하는 메타적 기제로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한 사회관계와 가치관은 물론, 문화, 예술, 종교, 철학, 심지어 일상적 공간과 관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호체계를

— www.kci.go.kr

14 롤랑 바르트 지음,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역(1997), p. 271.

통해 신화는 반복적으로 재현되며, 그 정치적 기원은 서서히 잊히면서 자연스러워진다. 즉, 지배계층은 신화를 통해 이데올로기의 자연화를 꾀하는 것이다. 본래 특정 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규범과 가치는 신화적 의미작용 속에서 ‘원래 그러한 것’으로 재의미화된다. 따라서 신화는 지배계층이 “하고 싶은 말”을 은폐된 형태로 전달하는 장치이며, 동시에 그 말이 말로서 인식되지 않도록 만드는 기호적 장치이다. 신화는 권력을 드러내기보다 감추고, 동의를 강제하고, 갈등을 질서로 포장한다.

전통사회에서 혼인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생애주기 이행은 개인을 공동체 질서 안으로 편입시키는 핵심적 통과의례였으며, 동시에 경제적·신분적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적 관문이었다. 그러나 가난한 계층의 남성은 혼례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웠고, 여성은 신분과 정절 이데올로기 속에서 혼인 선택권조차 갖기 어려웠다. 이러한 경우, 단명, 미혼, 후사를 잇지 못함 등은 단순한 가족사적 불우한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 질서의 주변부로 밀려난 자들이 통과 절차를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불이행 자체가 “사회적 실패”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통과의례를 완료하지 못하고 죽은 이들은 자연스럽게 ‘한이 맺힌 존재’, ‘사회적 불안과 규범위반을 표상하는 상징적 장치’로 기능했다. 이들은 생전에도 주변부에 위치한 존재였지만, 사후에도 공동체의 규범적 질서를 확인하는 ‘부정적 사례’로 사용되며 원혼으로 재위치화되었다. 이 지점에서 정상사와 이상사의 구분은 죽음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분류가 아니라, 삶 전체를 평가하고 규범화하는 기호적 장치로 작동한다. 원혼이 신화적 형상으로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이 생전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공적으로 발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분제, 가부장제, 성별 위계, 경제적 빈곤 등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에 원혼서사는 사회가 억압하고 은폐한 목소리가 메타언어의 형식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원혼은 설명되지 않은 죽음의 잔여물이 아니라, 너무 잘 설명되었기에 오히려 자연화된 폭력이

다시 기호로 떠오른 결과이며, 신화가 역사적 폭력을 은폐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 균열을 드러내는 지점에 위치된다. 전통 원혼서사는 오랫동안 ‘비합리적 민간신앙’이나 ‘미신적 상상력’으로 분류되어 왔지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원혼의 발생 조건과 서사 구조는 이들이 단순한 공포담이 아니라 전통사회가 특정한 죽음을 해석하고 관리하기 위해 구성한 의미체계였음을 시사한다.

원혼서사는 억울한 질서를 가시화함으로써 공동체 질서의 균열을 드러내며, 그 결과는 서사에 따라 질서의 회복으로 귀결되기도 하고, 기존 질서의 파괴로 이어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중에서 공적 권위의 개입을 통해 문제 해결이 시도되는 원혼서사의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한다. 전통 원혼서사의 대표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장화홍련전」과 「아랑전설」은 억울한 죽음 이후 원혼이 공적 권위 앞에 출현하여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가지며, 원혼이 발생하는 사회적 조건이 가부장적 가족질서, 혼인 규범 질서, 정절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계모에 의해 정절을 훼손했다는 누명을 쓰고 자살한 장화와 언니를 따라 자살한 홍련이 원귀가 되어 철산 부사에게 억울함을 토로하여 계모의 악행을 밝혀 원한을 푸는 내용인 「장화홍련전」과 자신을 겁탈하려는 관아의 통인에게 저항하다가 살해당한 아랑이 밀양 부사에게 억울함을 토로하여 자신을 죽인 범인을 밝혀 원한을 푸는 내용인 「아랑전설」은 모두 여성 인물의 죽음을 사회적 약자성, 통과 의례의 좌절, 발화권의 부재가 중첩된 구조적 사망으로 재현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의미작용을 형성한다.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생애는 혼인과 정절 규범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으며, 이러한 의례적 완결이야말로 한 인간이 공동체 내부에서 정당한 정체성을 획득하는 필수 조건이었다. 그러나 장화와 홍련은 계모의 박대와 모함으로 정절을 의심받아 강물에 빠져 죽음으로써 혼인에 이르는 사회적 경로가 박탈되고, 아랑 또한 혼례를 앞둔 시점에서 겁탈의 위기 속에서 살해당하며 여성 생애의 핵심 절차가 강제적으로 차단된다. 두 사례 모두에서 죽음은 단

순한 비극이 아니라 생애주기의 정상적 궤도에서 폭력적으로 탈락한 사건이며, 이러한 의례적 실패는 전통사회에서 곧 원혼 발생의 중요한 조건을 이룬다.

두 서사에서 여성의 자살과 타살은 공동체에 의해 정당하게 인지되지 못한 채 은폐되거나 왜곡된 형태로 처리된다. 장화와 흥련의 죽음은 ‘패륜적 자살’로 오해되어 장례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아랑의 죽음은 타살된 시신이 행방불명된 상태로 남아 장례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결국 이들은 공동체가 규정하는 ‘장례’라는 정상적 애도의 절차에 진입하지 못한다. 이렇게 죽음이 사회적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고 공동체 질서의 외부로 밀려나는 과정은 원혼이 억울함을 갖고 공동체에 귀환하게 하는 핵심적 장치이다. 또한 전통적 가부장제와 신분 질서 아래에서 여성은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과 누명에 대해 말화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갖지 못했다. 장화와 흥련은 생전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없었고, 아랑 역시 성폭력의 피해 사실을 호소할 권한과 공간을 박탈당했다. 이들 인물은 억울함을 공적으로 호소할 기회를 얻기도 전에 폭력적인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거나 방어할 가능성 자체가 차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서사에서 원혼의 귀환은 초월적 현상이 아니라, 생전에 봉쇄된 진실이 사후적 방식으로만 언표될 수 있는 구조적 귀환이다.

이처럼 원혼은 공동체가 억눌러온 목소리가 질서의 균열을 통해 되돌아오는 기호적 존재로 기능하며, 그 목적 또한 무질서의 확산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규범적 모순을 드러내고 이를 바로잡는 데 있다. 장화와 흥련의 원혼이 계모의 악행을 폭로해 가부장적 가족 질서를 재정비하도록 작동하고, 아랑의 원혼이 진실을 밝힐 부사를 찾아 사건의 공적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원혼이 공동체 규범의 회복을 촉발하는 서사적 장치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두 서사의 원혼 구조는 억압된 약자의 진실이 사후에야 공적 해결을 통해 밝혀지는 특정한 원혼서사 유형의 구조를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와 같은 원혼의 발생 사례를 통해 원혼서사의 서사구조를

“억울한 죽음 → 사후 귀환 → 진실 폭로 → 질서 회복”으로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원혼은 현실에서는 발화할 권리를 갖지 못한 존재들의 억울함을 공동체가 인정하고 해결하도록 압박하는 일종의 규범적 신화 체계라는 것이다. 즉, 원혼은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가 스스로의 질서를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사회적 신화에서 비롯되며, 균열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균열을 기존 질서 안에서 봉합하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하는 신화적 기호이다. 이러한 신화의 의미작용은 역사적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동일한 형식을 유지한 채 새로운 기의를 수용하며 재구성될 수 있다. 바르트가 강조하듯, 신화는 고정된 의미 내용을 전달하는 체계가 아니라 형식과 개념의 결합이 시대적 조건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동기화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기의는 고정되지 않고 미끄러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 원혼서사가 수행해 온 ‘억울한 죽음의 사회적 가시화’라는 신화적 기능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고 있는지를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 3. 신화의 미끄러짐과 〈노무사 노무진〉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은 ‘유령 보는 노무사의 좌충우돌 노동 문제 해결기를 담은 코믹 판타지 활극’이라는 독특한 작품 설명하에, 초자연적 요소와 현실적인 노동 문제를 결합한 작품이다. 주인공 무진은 취업이 쉽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노무사가 되지만, 월세조차 내기 힘든 현실에 처한다. 처제인 희주와 기자 출신 유튜버 견우와 함께 노동법을 어기고 있는 악덕 사장들을 공략해 돈을 벌어보려던 무진은 안전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공장 현장에서 ‘크게 한탕 땡겨보려던’ 찰나, 떨어지는 철근에 깔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다. 죽기 직전의 무진은 살기 위해 의문의 보살과 계약을 맺고, 그로 인해 원혼을 보게 되면서 억울하게 죽은 노동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노무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 드라마는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건과 ‘태움’으로 인한 신규간호사 자살사건, 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대형마트 주차장 직원 폭염 사망사건, 물류창고 화재 사망사건 등의 에피소드를 통해 한국 사회의 노동 현실을 정면으로 호출한다. 이때 <노무사 노무진>이 강한 현실성을 획득하는 까닭은 개별 사건의 사실적 재현이 아니라, 이미 사회적으로 공유된 기억의 구조를 호출하는 상호텍스트적 전략에 있다. 드라마는 특정 사건의 연도, 장소, 가해 주체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적 재현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비껴가는 대신,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산업재해의 어휘, 책임 회피의 구조, ‘어쩔 수 없다’는 해명 논리를 서사 내부에 재배치한다. 이러한 구성은 시청자로 하여금 개별 에피소드를 낫선 사건으로 인식하게 하기보다,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장치로 기능하게 만든다.

전통 원혼서사와 마찬가지로 <노무사 노무진>과 같은 현대 원혼서사에서도 두 개의 기호학 체계가 중첩되어 작동한다. 이때 1차적 언어학적 체계, 즉 ‘대상 언어활동’은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이상사’로 한정되지 않는다. 대신 산업재해, 과로사, 책임 회피, 제도적 침묵 등과 같이 현대 노동 현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체적 사건과 상태, 즉 ‘현대 노동사회에서 지나치게 정상화된 죽음’이 대상 언어활동의 기표로 제시된다. 산업재해, 과로사, 현장실습생의 사고, 폭염 속 노동자의 쓰러짐은 더 이상 ‘설명되지 않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법과 제도, 통계와 관행 속에서 충분히 설명된 사건으로 처리된다. 이때 대상 언어활동에서의 ‘현대 노동사회에서 지나치게 정상화된 죽음’이라는 기표에 결합되는 기의는 ‘불가피성’, ‘개인의 관리 실패’, ‘개인적 차원의 취약성’이다. 이 둘이 결합한 1차 기호는 곧 ‘사회적으로 정상화된 어쩔 수 없는 죽음’이다. 이러한 1차적 의미작용의 기호 전체는 다시 메타 언어활동, 즉 신화의 기표로 탈취된다. 이때 ‘사회적으로 정상화된 어쩔 수 없는 죽음’이라는 1단계 기호는 역사적·사회적 발생 조건이 비워진 채 하나의 형식으로 작동한다. 이 형식에 결합하는 신화의 기

의는 ‘이 죽음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노동자의 희생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폭력이 침묵으로 강요받는다’와 같은 ‘구조적 책임 호출과 규범에 대한 재질문의 필요성’이다. 이때 기표와 기의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메타 언어활동에서의 기호가 바로 현대 원혼서사에서의 ‘원혼’이다. 따라서 현대 원혼서사에서의 원혼은 설명되지 않은 죽음의 표상이 아니라, 너무 잘 설명되었기에 오히려 비가시화된 죽음의 귀환으로 정의될 수 있다.

〈노무사 노무진〉에서 원혼을 달래,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서사는 이러한 신화적 의미작용을 구체화하는 서사 장치로 기능한다. 노무진이 보살과 맺은 계약은 단순한 판타지적 설정이 아니라, 제도적 언어로는 더 이상 문제화되지 않는 노동자의 죽음을 다시 말하게 만드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한다. 〈노무사 노무진〉이 ‘한국 사회의 노동문제’라는 무거운 주제에 ‘무속’이라는 판타지적 방법을 결합한 것은 무거운 사회 문제에 대한 시청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판타지적 무속 요소, 특히 원혼을 보고 소통하는 주인공의 능력은 현실에서 보이지 않거나 외면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가시화하고, 이를 통해 대중의 공감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이는 엔터테인먼트가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강력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노무사 노무진〉의 개별 서사는 모두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라는 공통된 구조 위에서 전개되며, 현실 사회의 노동 문제를 서사적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점은 각 에피소드가 단순한 극적 장치가 아니라, 실제 한국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노동 재해, 과로사,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을 모티프로 삼고 있음을 통해 더 분명해진다. 〈노무사 노무진〉은 원혼의 전통적 기표를 유지한 채 내부 기의를 현대 노동 현실의 폭력성으로 대체하는 신화적 의미작용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기의의 전환은 드라마가 실제 노동 참사 사건들을 원혼 서사의 기표로 재배치하는 방식에서 구체화된다. 아래 표는 각 회차의 사건이 어떠한 현실의 노동 문제와 구조적으로 공명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sup>15</sup> 이후의 드라마 분석은 개별 서사와 실제 사례를

일대일로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지나치게 정상화된 죽음’이 어떻게 원혼이라는 신화적 기표로 전환되는지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드라마 회차	드라마	현실
2화	‘태협철강’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제주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3~4화	신입 간호사 ‘태움’ 사망사건	간호사 태움 문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자살 사건
5~6화	한국대학교 청소년노동자 사망사건	서울대학교 청소년노동자 사망 사건 연세대학교 청소년노동자 쟁의
7화	외국계 대형마트 폭염 노동자 생령사건	코스트코 주차장 직원 폭염 사망 사건
8~10화	‘명음건설’ 부국창고 노동자 집단 사망사건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건 이천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사건

〈노무사 노무진〉 2화에 등장하는 현장실습생 이민욱의 서사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청소년 노동자의 죽음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조작되고 은폐되는지 구체적으로 재현한다. 극중 민욱은 태협철강 공장에서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사망하지만, 그의 죽음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직적 조작의 결과로 제시된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9조에 의하면 현장실습생은 1일 7시간 이내의 근무만 허용되며, 동의가 있을 경우에도 1일 1시간의 연장 근무만 가능하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과 휴일에는 현장실습을 시킬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드라마 속 민욱의 사망 시간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휴일의 야간 시간대인 2020년 10월 1일 0시 5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구조를 받지 못한 채 약 15분간 방치된

15 이는 드라마가 이미 사회적으로 공유된 노동 참사의 전형적 구조를 서사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참조 자료이다. 제작진은 개별 에피소드의 모티브가 된 특정 실화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드라마가 재현하는 사건들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노동 관련 사회적 문제들의 전형적 구조를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각 에피소드는 이미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지된 노동 문제에 대한 집합적 재구성으로 읽히며, 그 참조 대상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끝에 0시 20분 사망에 이른 것으로 묘사된다. 태협철강 측은 2020년 10월 1일부터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 시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망 시점을 2020년 9월 30일 23시 50분에 즉사한 것으로 조작한 서류를 가족에게 전달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의 죽음을 은폐하려 한다. 이는 전통 원혼서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상사의 은폐’ 구조를 현대의 노동 현장에 그대로 이입한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규정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보호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사고’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회피 경로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은폐의 논리는 사장의 대사를 통해 노골적으로 언표화된다. “몸통까지 끼었는데 살아나겠냐? 운 좋게 살아도 산재로 이것저것 걸고 넘어지면 우리 문 닫아야 해, 임마 … 지가 혼자 정비하다 기계에 끼긴 걸로 해야 되니까.”(2화)라는 사장의 발언은 개인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재해를 기업 존속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만듦으로써 현장실습생의 생명보다 기업의 존속과 법적 책임 회피를 우선시하는 자본의 논리를 압축적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현장실습생의 위협을 ‘노동시장 진입 훈련’이라는 명목 아래 정당화해온 국가와 자본의 신화적 담론을 반영한다. 즉, 현장실습은 ‘노동을 할 수 있는 성인이 되기 위한 성장 통과의례’처럼 제시되고, 청소년 노동자의 죽음은 우연에 의해 벌어진 개별적 사고로 환원된다. 여기서 산업재해는 철저히 사물화되어 죽음의 구조적 조건은 배제되고, 책임 주체는 신화 속에서 소거된다. 또한 조작된 서류와 사장의 무책임한 발언은 노동자의 생명을 비용으로 전유하는 자본의 폭력적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책임의 탈주체화’가 신화적 언술의 핵심임을 상기시킨다. ‘내부 규정을 어긴 개인의 실수’라는 설명은 현실의 불의가 ‘자연적 질서’로 둔갑하는 방식이며, 이로써 ‘현장실습생의 죽음’이라는 사회적 비극은 ‘말 없는 신화’로 전환된다. 민욱의 원혼은 단순한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라, 제도적 보호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청소년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서사적으로 가시화된 기호로 재현된다.

드라마는 이러한 신화적 자연화에 균열을 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무진의 발화를 활용한다. 무진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린 학생이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보호해야 하는.”(2화)이라 말하며 분노를 표출하는데, 이 장면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의 발현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존재를 방치한 사회적 책임의 문제를 제기하는 윤리적 발화로 기능한다. 나아가 진실을 밝힌 이후, 민욱의 어머니와 헤어지기 직전 “선해 씨”라고 부르며 장난을 치는 무진의 모습에서 순간적으로 민욱으로 전환되는 연출은 생전에 회복되지 않았던 발화의 권리가 빙의를 통해 사후에 회복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회차에서의 원혼은 ‘설명되지 않은 죽음’의 귀환이 아니라, 법과 제도, 관행과 같은 제도적 언어 속에서 배제되어 온 청소년 노동자의 죽음이 다시 말해지도록 만드는 신화적 기호로 기능한다.

〈노무사 노무진〉 3~4화에 등장하는 선임 간호사 이서정의 폭력적 언행과 신입 간호사 조은영의 죽음은 개인 간 갈등이나 성격적 문제로 환원될 수 없는 사건으로 제시된다. 이 에피소드는 한국 병원 조직문화에서 구조화된 ‘태움’이 어떻게 위계적 노동 환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며, 그 결과 발생한 죽음이 어떻게 개인적 갈등의 문제로 축소되고 자연화되는가를 드러내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한다. 극중 은영은 무진에게 빙의된 상태에서 자신에게 의료사고의 책임을 전가한 의사를 향해 “네가 의사야? ... 나는 네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왜 나한테 뒤집어씌워? 신입인 나한테 왜 그랬냐고, 왜? 내가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는데. 지 하나 살겠다고 죄없는 사람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너 같은 게 사람을 살린다고?”(3화)라고 외치며 분노를 표출한다. 이 발화는 단순한 개인적 원망의 토로라기보다, 위계적 의료조직 속에서 신입 간호사에게 전가되는 책임 구조와 침묵을 강요받은 억울함의 집약된 언표로 기능한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은영의 죽음을 남자친구 문제로 인한 개인 신변 비관으로 인한 자살로 몰아가며 사건의 구조적 맥락을 철저히 제거한다. 은영이 사망한 이후에도 병원 노조와 경찰은 은영의 억울함을 알기 위해 사건의 진상을 적극적으로 규명하지 않으며, 유

가족 역시 제도적 보호망으로부터 고립된다. 유가족을 찾아간 무진에게 “우리 딸아이 일에 이렇게 관심 갖고 서울에서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3화)라고 말하는 부모의 발언은, 은영의 죽음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애도되거나 공론화되지 못했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전통 원혼서사에서 반복되는 ‘억울한 죽음의 은혜’가 현대적 제도 환경에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태움’이란, 익숙하지 않은 간호조직문화에 대한 부적응과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 상태에 놓인 신규간호사에게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불건전한 상태를 초래하는 경력간호사의 부당하고 가혹한 행위<sup>16</sup>를 지칭한다.<sup>17</sup> ‘태움’이라는 무리한 제도적 요구는 숙련 간호사와 신입 간호사 간의 위계적 압박 관계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최소 인력으로 최대 효율을 요구하는 병원 경영 전략은 선임 간호사에게 과도한 업무와 교육 책임을 전가하고, 신입 간호사에게는 실패에 대한 자책과 불안정성을 내면화하게 만든다. 간호사 단체의 성명에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이익을 꾀하는 병원경영 방침 속에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업무에 대한 자책감은 신규간호사의 몫이었고, 과도한 업무량을 감당하며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선임간호사의 몫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업무수행능력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폭력적인 조직문화는 자연스러웠고 또한 병원의 안일한 대응은 신규간호사에게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이수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고인의 마지막 선택은 신규간호사를 둘러싼 작금의 간호노동환경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타살인 것입니다.”<sup>18</sup>라며 지적하듯, 이러

16 송해리·김명희(2022), 「간호사 ‘태움’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한국사회학』 56(4), 한국사회학회, p. 107.

17 간호사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입사 시부터 단기간 내에 간호 술기를 배우는 것뿐 아니라 환자의 컴플레인을 대처하는 제도, 3교대에 맞춰 자신의 삶을 재조직하는 일, 3교대의 살인적 스케줄 속에서도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일-지식 등 다양한 제도적 관계에 참여하게 된다. 송해리·김명희(2022), p. 116.

18 행동하는 간호사회 성명서(2021), 「더이상 간호사를 죽이지 마라!」, 행동하는 간호사

한 구조 속에서 발생한 간호사의 죽음은 개인의 선택이나 적응 실패가 아니라, 제도적·구조적 폭력이 누적된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은 드라마 속 서정의 인물 형상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서정은 은영에게 “정신 안 차려? 바빠 죽겠는데”, “네가 들어와서 더 힘들다”, “회진 다 됐는데 뭐 하는 거야” 등 반복적인 모욕과 압박을 가하며 전형적인 ‘태움’의 가해자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은영의 죽음 이후 서정은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병원 옥상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무진에게 “그때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4화)라고 고백한다. 이 발언은 서정이 태움의 가해자인 동시에 병원 조직이 강요한 비효율, 과로, 책임 전가 체계를 내면화한 구조적 폭력의 또 다른 피해자임을 드러낸다. 즉, 이 에피소드는 가해와 피해의 이분법을 유지하기보다, 구조적 폭력이 개인을 통해 어떻게 순환되는지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서사를 확장한다.

결정적인 전환은 은영의 원혼이 무진에게 빙의되어 서정을 구하려는 장면에서 이루어진다. 서정은 무진을 통해 은영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는 동시에, 은영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의사의 구두처방 메모지를 제출함으로써 의료사고가 의사의 지시에 의해 발생했으며, 병원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음을 증언한다. 은영의 죽음은 개인의 불운이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의료조직의 구조적 책임이 개입된 사건으로 재위치되며 공적 추모의 대상이 된다. 은영은 자신의 죽음이 사회적으로 승인된 이후에, 그 진실을 밝힌 무진에게 인사를 하며 사라진다. 따라서 이 에피소드는 ‘태움’이라는 병원 노동의 현실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조적 폭력이 개인의 죽음을 어떻게 침묵 속에 가두는지를 드러내는 서사적 장치들 구성한다. 여기서 원혼은 초자연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제도적 언어와 조직 논리 속에서 삭제된 죽음을 다시 발화 가능하게 만드는 기호로 기능한다.

회 웹사이트, <https://actnownurse.com/statement/?bmode=view&idx=8911348>(접속일: 2025. 12. 19.).

〈노무사 노무진〉 5~6화는 대학 청소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죽음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기관 내부에 내재한 계급적 위계와 비가시화된 노동의 문제를 원혼서사의 형식으로 재현한다. 이 에피소드는 2019년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실제 사건들과 강한 상호텍스트성을 형성한다. 더 나아가 2022년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청소노동자 노조가 쟁의를 벌이던 과정에서 일부 대학생들이 소음을 이유로 청소노동자 노조를 고소하면서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사건은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청소노동자가 어떤 위계적 위치로 인식되는지를 보여준다. 당시 정부는 냉난방 시설을 갖춘 최소 6㎡ 규모의 휴게 공간을 마련할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창문 없는 창고를 휴게 공간으로 전환하거나 미관을 이유로 환기를 차단하는 등 규정이 형식적으로만 이행되었다. 또한 ‘정기 교양 테스트’와 같이 실제 업무와 무관한 평가 장치를 운영하며 노동자의 순응 여부를 상징적으로 통제 한 바 있다. 이는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의 노동을 ‘하층 노동’으로 분류하고 그 가치를 체계적으로 은폐해온 구조적 맥락을 보여준다. 대학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그로 인한 죽음이 제도적 폭력의 결과가 아니라, 고령이나 지병과 같은 개인적 사유로 환원되는 순간, 대학의 구조적 책임은 삭제되고 죽음은 자연화된다.

이러한 신화적 자연화는 단순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이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회적 감각을 재생산한다. 드라마가 제시하는 청소노동자의 “우리는 학교에서 로봇청소기 취급을 받고 있다”는 진술은 이 신화적 자연화의 효과가 제도나 담론의 차원을 넘어 일상 언어와 자기 인식의 차원으로 침투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청소노동자가 스스로를 ‘로봇청소기’라는 비인격적 기호로 치환함으로써 자신의 노동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자동화된 기능, 즉 교체 가능하고 감정 없는 장치로 인식되고 있음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언표는 노동의 저평가와 비가시화가 단순한 경제적 착취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과 발화권의 박탈이라는 상징적 폭력

의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로 인해 청소노동자는 ‘대학’이라는 공적 공간을 유지하는 필수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라 ‘항상 작동해야 하지만 말해서는 안 되는 장치’로 위치지워진다. 그 결과 노동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제도적 언어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신화적 은유를 통해서 자신이 처한 상태를 표현하게 된다.

이러한 신화적 자연화의 효과는 <노무사 노무진> 5~6화에서 보다 정교한 서사적 장치로 변주된다. 해당 에피소드는 대학 청소노동자에게 강요되는 이른바 ‘정기 교양 테스트’를 중심으로, 노동을 평가한다는 명목 아래 작동하는 권력의 구조를 가시화한다. 감독관은 “우리는 최고 명문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에 걸맞는 마음가짐, 몸가짐, 생활 습관, 그리고 인격적 소양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5화)고 말하는 장면에서 시험은 교육이나 평가의 수단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특정한 태도와 복종을 요구하는 상징적 통제 장치로 기능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노동자 영숙의 죽음은 제도적 폭력이 어떻게 개인의 신체적 한계로 환원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된다. 시험 성적 공개, 재계약 불이익의 암시, 외모와 복장에 대한 훈계 등은 노동 환경의 구조적 압박을 구성하지만, 학교 측은 영숙의 죽음을 ‘고령에 의한 심장마비’로 처리함으로써 제도적 책임을 회피한다. 이는 앞선 에피소드들과 마찬가지로,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취약성으로 전치시키는 전형적인 신화적 대응 방식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폭력은 사라지고 ‘불운한 개인’만 남는 것이다. 청소노동자들은 처음에는 무진에게 “괜히 굶어 부스럼 만드는 것 아니냐”며 사건을 파헤치지 말 것을 요구하지만, 곧 노동의 비가시화와 비인격화를 상징적으로 압축하는 “우리는 학교에서 로봇청소기 취급을 받는다”는 발언을 통해 울분을 집단적으로 분출하며, 노조를 결성하여 시위를 벌인다. 그러나 학생들 중 일부는 소음을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며 갈등을 심화시킨다. 희주가 “너희도 졸업하면 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자, 한 학생이 “저희 법대생인데요?”(6화)라고 응답하는 장면은,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학력과 전공이 계급적 우월성을 보증해 줄 것이라는 착

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후 학생들이 청소노동자들을 조롱하는 포스트잇을 붙이는 장면은, 정당한 노동 투쟁이 일상적 혐오와 조소로 전환되는 과정을 시각화한다.

사건의 전환점은 건우의 실시간 방송 라이브를 통해 시험과 노동 환경의 실태가 공적인 장으로 끌어올려지는 순간에 마련된다. 청소노동자 모두가 알고 있는 교가를 시험 감독관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양'과 '자격'을 판단할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역전된다. 이후 학교 측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학생들 역시 청소노동자를 지지하는 시위를 조직하며 제한적이거나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동료 노동자들의 처지를 더 걱정했던 영숙은 제도 개선과 사회적 가시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사라진다. 이 에피소드에서 원혼은 억울한 죽음의 복수를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비가시화된 노동을 사회적 연표의 장으로 끌어올리는 매개자로 기능한다. 따라서 5~6화에서의 원혼은 대학 청소노동자의 죽음을 개인적 불운이나 고령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교육 기관 내부에 고착된 계급 인식과 제도적 폭력을 드러내는 현대적 원혼서사의 또 하나의 변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무사 노무진〉 7화는 이미 사망한 원혼이 아닌, 생물학적으로는 살아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탈락 상태에 놓인 '생명'(生靈)을 통해 현대 청년 계층의 폭력적 노동 현실을 가시화한다. 생명은 죽음 이후의 귀환이 아니라,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주체로 인식되지 못한 상태를 형상화하는 기호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원혼과 구별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윤재는 취업이 확정되었다는 기대가 무산된 뒤 외국계 마트 주차장 관리 업무에 투입되고, 폭염 속 노동으로 쓰러져 혼수 상태에 빠진 채 육체 밖을 떠도는 생명의 상태로 등장한다. 이는 생존의 조건과 사회적 소속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살아 있으나 이미 탈락한 존재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윤재의 발화는 이와 같은 생명 상태가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 “깨어나 봤자 학자금 대출에 이

젠 병원비까지, 빚만 잔뜩 늘어날 거고,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 발버둥쳐도 달라지는 건 없겠죠.”(7화)라는 체념은 단순한 비관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 미래를 갱신할 수 없다는 구조적 인식의 결과이다. 특히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우기는 세상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받는 거래요. 성공하지 못했다고 노력하지 않은 거 아니고, 이루지 못했다고 간절하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배반당하는 노력이 더 많고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7화)라는 그의 발화는 현대 사회에서 실패가 구조적 조건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환원되는 신자유주의적 책임 담론을 정면으로 해체하여 제시한다. 여기서 원혼의 ‘억울함’은 분노나 복수의 정념으로 표출되지 않고, 번아웃과 무기력, 자기 비난의 형태로 내면화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서사는 2023년에 발생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맡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강한 상호텍스트성을 가진다. 해당 사건에서 노동자는 폭염과 차량 열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채 고강도의 육체 노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했으며, 사인은 온열 환경과 과중 노동이 결합된 명백한 산업재해였다. 그러나 기업 측은 기저 질환 가능성을 제기하며 산재 인정을 회피했고, CCTV 제공 역시 본사 승인이라는 행정 절차로 유예하였다. 인력 축소와 비용 절감, 반복된 위험 신호의 묵살은 구조적 문제임이 명확하나, 사건은 개인의 건강 문제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드라마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드라마 속에서 매니저가 “사실 그건 여름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증상 아닌가요?”(7화)라고 말하며 회사의 책임을 부정하고,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본사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CCTV 영상을 제시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장면은 이러한 구조적 책임 회피가 어떻게 자연 현상과 행정 절차로 탈바꿈되는지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재영, 이성수(2021)<sup>19</sup>의 연구에 따르면,

19 Jae Young Lee, Sungsu Lee(2021), 「폭염 재난을 경험한 실외노동자의 심리특성에 관한 연구」, 『Crisisonomy』 17.5,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폭염 재난을 경험한 실의노동자의 경우,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려 하고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무기력으로 인해 휴식 장소로 이동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sup>20</sup> 또한 일에 대해 책임감을 높게 갖고 있으며, 성실히 그 일을 마무리하려는 심리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된다. 더 나아가,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보고서<sup>21</sup>에 따르면, 대다수의 청년은 자신의 노력이 미래 실현에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삶의 만족도는 낮고, 상당수가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번아웃의 주요 원인으로 ‘진로 불안’을 지목한 비율이 높다는 점은, 노력과 책임이 오히려 소진의 기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책임’과 ‘노력’에 의한 ‘번아웃’은 드라마 속 윤재의 노력과 성실에 대한 강한 내면화와 구조적 좌절이 동시에 작동하는 모순적 상태와 맞닿아 있다. 생령은 생존한 상태임에도 이미 사회적으로 삶의 궤도에서 밀려난 존재로 형상화되어, 노동과 부채, 불안정 고용 형식 속에서 이미 탈락된 청년의 사회적 죽음을 가시화하는 기호로 작동한다. 윤재가 비판하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신화적 명제 중 하나로, 성공과 실패를 구조적 조건이 아닌, 개인의 도덕성과 성실성의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노동 환경의 구조적 폭력과 제도적 책임을 은폐한다. 노력 담론은 특정한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형성된 가치 판단을 자연화하여 자본주의적 노동 질서를 정당화하는 기호로 기능하며, 실패한 개인을 자연스럽게 책임 주체로 전유한다. 그 결과 번아웃은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 개인의 기력 소진으로 해석되면서 개인의 심리 상태로 치환된다.

무진이 견우와 함께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주차장 노동 환경을 드러내고, 외국 본사에 대한 압박을 통해 CCTV 제공과 치료비 지원을 이끌

20 Jae Young Lee, Sungsu Lee(2021), p. 102.

21 정세정 외(2025),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어내는 과정은 이러한 신화적 은폐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개입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 개입은 제도 전반의 변화라기보다, 특정 사건을 둘러싼 책임의 가시화에 국한된다. 이후 무진이 생명 상태의 윤재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떠나는 장면은 전통 원혼서사에서의 해원 의례를 변형한 상징적 장면으로 읽을 수 있다. “지금은 이 터널처럼 인생이 끝도 없이 답답하고 짊짊하겠지만, 야, 터널은 다음 목적지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잖아.”(7화)라는 무진의 말과 함께,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해 푸른 바다가 펼쳐지는 시각적 구성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의 일시적 해방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장면은 질서 회복이 아니라, 생존을 지속할 최소 조건, 즉 ‘번아웃’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제시하는 것에 그친다. 마찬가지로 윤재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노무사에 도전하겠다고 말하는 결말 역시, 완결된 구원이 되기보다, 탈락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유예되었음을 암시하는 장치에 가깝다. 이는 개인의 회복 의지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을 제시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안전과 회복과 같은 생존 조건이 확보되었을 때에만 다시 미래를 상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7화의 생령은 문제 해결의 서사라기보다, 현대 노동사회에서 청년들이 어떤 조건에서 ‘살아남기’조차 어려워지는지를 드러내는 비판적 신화로 기능한다.

개별 원혼의 해원에 초점을 둔 1화~7화와 달리, 〈노무사 노무진〉의 8~10화에서는 ‘명음건설’ 부국창고 대형화재로 인한 8명의 노동자 집단 사망사건을 통해, 현대 산업재해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은폐되는가를 원혼서사의 형식 안에서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화재 당시 노동자들은 개인 휴대전화를 별도의 보관함에 두도록 강요받아 초기 신고가 지연되었고, 노후화된 소화기는 화재 진압에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했다. 비상문 앞은 적재물로 인해 가로막혀 있었고, 이를 치운다 하더라도 비상문 자체가 열리지 않는 상태였다. 결국 8명의 노동자들은 비상문 앞에서 연기에 질식사망한다. “우리가 받은 고통, 똑같이 받게 해줘요.”(8화)라는 원혼의 발언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 방치와 구조적 무책임이 축

적된 결과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게 한다. 이때 원혼은 억울한 피해자의 표상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재해의 원인이 개인을 넘어 제도와 조직, 권력의 층위에 있음을 가시화하는 집합적 기호로 작동한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실을 호출한다. “일하다가 1,700명이 죽었는데 처벌이 고작 2%가 말이 됩니까?”(8화)라는 건우의 대사는 법 제도의 존재와 실제 작동 사이의 괴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법 제도가 오히려 책임 분산의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음을 비판한다. 드라마 속 명음건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창고 운영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고, 명목상의 사장을 내세워 본사와의 법적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해 두었다는 설정은,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산업재해의 책임이 어떻게 사전에 분절되고 비가시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장치이다. 나아가 사건의 핵심 증인을 제거하기 위해 폭력 조직까지 동원하는데, 이는 산업재해가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와 결합할 수 있음을 극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고’가 은폐해 온 폭력의 범위를 확장한다.

〈노무사 노무진〉은 이 사건을 단순한 고발로 끝내지 않는다. 무진을 만난 부국창고의 사장은 보이지 않는 8명의 원혼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명음건설이 실질적 책임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와 문서가 담긴 USB를 화재 당시의 사무실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고 밝히며 협조를 약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자살로 위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는 구조적 폭력이 개인의 양심 고백만으로는 중단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때 분노한 원혼들이 현실 세계에 물리적 균열을 일으키는 초자연적 현상은 침묵과 은폐를 통해 유지되어 온 권력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형상화된다. 원혼은 더 이상 사후의 피해자가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를 흔드는 집단적 힘으로 재위치화된다. 드라마는 이 분노의 정점을 정치권력과 자본의 결탁 장면으로 확대한다. 무진이 원혼들과 함께 경영진과 정치인의 결탁 현장에 개입하는 서사는 전통 원혼서사의 ‘사후 귀환 →

진실 폭로' 구조를 현대적으로 변주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의 균열과 붕괴 조짐은 단순한 시각적 효과가 아니다. 부실시공과 안전 규정 위반이 누적된 물리적 구조물의 파열은 곧 사회 구조의 균열을 은유한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전을 우선하며 노동자를 밀어내는 회장의 행위는, 자본의 자기보존 논리가 노동자의 생명보다 상위에 놓이는 순간을 극단적으로 가시화한다. 이후 무진과 회장은 함께 추락해 전태일 보살의 공간으로 들어가고, 보살은 회장을 살려주는 대신 49일 이내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체결 이후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의 과거로 돌아온 이들은 함께 대피한다.

이 에피소드는 현실의 대형 물류창고 화재 사건들과 강한 상호텍스트성을 가진다. 스포링클러 미작동, 탈출로 미확보, 신고 지연, 반복된 현장 경고의 무시는 현실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구조적 조건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8~10화의 물류창고 화재 서사는 대형 산업재해를 '우발적 사고'가 아닌,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구조적 폭력의 결과로 재의미화한다고 볼 수 있다. 전통 원혼서사가 개인의 억울함을 공동체 규범 회복으로 수렴했다면, <노무사 노무진>에서의 원혼은 책임의 범위를 개인 차원을 넘어 자본, 정치, 법 제도의 결합 구조로 확장한다. 즉, <노무사 노무진>의 물류창고 화재 서사는 원혼이라는 전통적 형식을 유지한 채, 현대 산업재해의 정치성과 구조성을 드러내는 새로운 기의를 덧입힌 신화적 의미작용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노무사 노무진> 8~10화에서 집단 산업재해 서사와 병렬적으로 배치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주인공 노무진의 형에 대한 회상이다. 화재 사건이 일단락된 뒤, 무진은 귀가하던 길에 이미 사망한 형과 마주치는데, 이 장면은 형의 제삿날을 통해 형이 일시적으로 귀환했음을 암시한다. 이후 무진의 기억을 통해 형의 죽음은 덜 마른 콘크리트 골조 위에서 무리하게 천장 상판 작업을 강행하던 중 발생한 전형적인 산업재해였음이 밝혀진다. 형은 현장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지연과 윗선의 압박으로 인해 작업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형

의 억울함은 대형 물류창고 화재와 달리 집단적 분노의 폭발이나 초자연적 복수로 전개되지 않는다. 형은 원혼의 상태로 등장하지만 자신의 죽음에 대해 분노하거나 책임자를 고발하지 않고, 무진에게 조용히 말을 걸며, 이미 오래전에 일상 속으로 침잠해 있던 ‘어쩔 수 없음’의 기억을 호출한다. 이는 이 드라마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다. 즉, 무진의 형은 해결되지 않은 억울함의 표상이라기보다, 이미 사회적으로 정상화되고 자연화된 산업재해의 표본으로 제시된다. 이때 형의 죽음은 전통 원혼서사에서의 ‘이상사’와는 미묘하게 다른 위치를 점유한다. 형의 사망은 법적으로나 통계적으로는 ‘산업재해’로 분류될 수 있으나, 사회적 인식의 차원에서는 ‘현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어쩔 수 없는 희생’으로 흡수된다. 다시 말해, 형의 죽음은 공동체를 교란하는 원혼으로 귀환할 만큼의 서사적 문제성조차 박탈된 죽음이며, 형은 원혼이 되지 못한 원혼, 혹은 신화로조차 호출되지 못한 희생자로 위치된다. 신화는 역사적·구조적 폭력을 자연화함으로써 그 정치성을 은폐한다. 무진의 형이 겪은 산업재해는 바로 이 신화 작동의 결과이다. ‘공사 일정’, ‘현장 관행’, ‘먹고살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라는 기의가 형의 죽음을 둘러싼 사건 전체를 덮어버리면서, 그의 사망은 더 이상 문제적 기호가 되지 않는다. 즉, 형의 죽음은 자연화되었기 때문에 원혼으로 발화할 필요조차 사라진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무진의 형은 8명의 물류창고 원혼과 결정적인 대비를 이룬다. 집단 사망 사건에서 원혼들은 분노하며 사물을 흔들고, 정치가와 기업인과 같은 권력을 공포에 빠뜨리는 초월적 힘을 가진 것으로 등장한다. 반면 형은 자신의 제삿날에 조용히 귀환하며, 오히려 무진 개인의 기억과 죄책감 속에서만 존재한다. 이는 산업재해가 집단적 참사로 폭발할 때에만 비로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개별적 사고로 환원될 경우에는 신화의 영역에서조차 배제된다는 냉혹한 현실을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무진의 형의 서사는 〈노무사 노무진〉 전체에서 원혼 서사의 윤리적 기준점을 형성한다. 형의 죽음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그릴 수 있는 일’로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에, 무진은 더 이상 원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그로 인해 전태일 보살에게 의뢰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무진이 원혼의 의뢰를 수행하는 동력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이미 신화에 흡수되어 버린 형의 죽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자각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진의 형은 전통 원혼서사의 외부에 위치한 예외적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원혼이 되지 못하도록 관리된 죽음의 전형을 대표한다. 그는 억울함을 발화하지 않음으로써, 오늘날 노동자의 죽음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비가시화되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이 점에서 형의 에피소드는 <노무사 노무진>이 단순히 '억울한 죽음을 구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죽음은 아예 말해질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는 서사임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노무사 노무진>에서 원혼은 전통 원혼서사에서처럼 초월적 공포나 윤리적 인과응보의 상징만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 드라마의 각 에피소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의 원혼은 현대 노동현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애도의 질서에서 탈락한 죽음과, 그 탈락된 죽음 상태를 다시 사회적 언표의 장으로 호출하는 신화적 기호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혼이 전통 원혼서사에서 '공동체 질서의 균열'을 설명하고 관리하기 위한 신화적 기호였다면, 현대 원혼서사에서는 이미 '공동체의 정상 질서로 흡수된 폭력'을 다시 가시화하고, 이를 공동체의 정치적·윤리적 질문으로 환원시키는 신화적 기호로 재배치된다. 바르트에 따르면 신화는 특정 역사적 조건에서 발생한 사건을 자연화함으로써 그 정치성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노무사 노무진>에서는 이러한 신화를 폭로하며, '어쩔 수 없는, 그럴 수 있는 일'로 자연화된 산업재해와 노동의 희생을 다시 문제적 기호로 구성하고, 이를 원혼이라는 형식을 통해 가시화함으로써 책임의 귀속을 사회 전체로 확장한다. 이때 원혼은 더 이상 '통과의례를 통과하지 못하고 죽은 자의 원한'이 아니라 '공적으로 말하지 못한 구조적 폭력'으로 인해 죽은 자의 원한'을 보여주게 되며, 더 나아가 생령은 생물학적 생

존과 사회적 생존의 괴리가 극대화된 현대 자본주의의 모순을 드러내는 변형된 신화적 기호로 작동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 원혼서사는 전통 원혼서사의 “억울한 죽음 → 사후 귀환 → 진실 폭로 → 질서 회복” 형식을 유지 하면서, 그 내부 기의를 노동 현실과 제도 비판으로 치환한 신화적 의미작용의 변형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 4. 결론

바르트가 강조하듯, 신화의 의미작용은 결코 완전히 자의적이지 않다. 그것은 언제나 부분적으로 동기가 부여되어 있고, 숙명적으로 유추의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sup>22</sup> 동기화는 신화의 이중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신화는 의미와 형식의 유추 위에서 작용한다. 그러므로 동기화된 형식이 없는 신화는 없다.<sup>23</sup> 신화는 무질서한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형식이지만, 그 형식에 유추를 제공하는 것은 자연이 아니라 역사이다. 이 점에서 현대 원혼서사는 우연적 서사 장치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노동 현실이 축적해 온 역사적 조건에 의해 필연적으로 동기화된 신화적 형식이다. 산업재해와 과로사는 통계적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개인의 죽음에 대한 설명은 설득력을 상실하여 비가시화된다. 모든 노동자의 죽음이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무사 노무진〉은 현실에서 제대로 애도되지 못하는 죽음을 서사의 중심에 배치함으로써, 드라마 자체가 일종의 현대적 추모 의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으로 작동한다. 산업재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죽음은 종종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내부적으로 봉합되거나 서류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그 과정에서 공식적인 애도의 기회를 박탈당한다. 드라마

22 톨랑 바르트 지음,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역(1997), pp. 288-289.

23 톨랑 바르트 지음,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역(1997), p. 289.

에 등장하는 원혼은 폭력적 죽음 그 자체보다, 죽음 이후 작동하는 언어—산재 불인정, 개인 책임 전가, 행정 절차의 지연—가 충분히 축적되었을 때 비로소 출현할 수 있다. 드라마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죽음’을 시각화하고 공론화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이들의 죽음을 인지하고 애도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전통적인 추모 의례가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했던 것처럼, ‘드라마’라는 대중문화가 사회적 유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집단적 애도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여기서의 애도는 완결된 치유나 구조적 해결을 의미하기보다, 제도적으로 처리되어 왔던 죽음이 비로소 인지되고 말해질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제한된 사회적 장치로 기능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현대 원혼서사가 지배 이데올로기의 자연화를 강화하거나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자연화된 언어를 신화의 형식으로 전유함으로써, 그 언어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가시화하고, 그 자연화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노출시키는 것에 그친다. 다시 말해, 현대 원혼서사는 자연화를 완벽하게 해체하기보다는, 자연화된 언어가 어떻게 구성되고 반복되는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비판적 효과를 생산한다. 건우의 실시간 라이브 방송은 이러한 서사적 한계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장치이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은 제도적 해결의 대안 이라기보다,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조건의 임시적 해결 장치로 기능하는데, 현대 원혼서사가 가시성 확보를 통해서만 억울함을 발화할 수 있는 시대적 한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결국 라이브 방송은 플랫폼 권력이 해원을 매개하는 현실을 드러내며, 현대 사회에서 문제로 인식되는 죽음은 ‘노출 가능성’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폭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원혼서사는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노무사 노무진>에서 원혼의 억울함은 일정 부분 해소되지만, 그 해소는 완전한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법적 책임은 제한적으로 부과되고, 기업과 제도의 근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전통 원혼서사에서 해원과 성불과

정이 공동체 질서의 회복으로 귀결되었던 것과 형식적으로 닮아있으나, 현대 원혼서사에서는 공동체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축소된다는 결정적인 차이점을 보인다. 이로써 해원과 성불 과정이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사회적 탈락 상태의 일시적 유예로 재의미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조를 완전히 바꾸지 않아도 원혼은 성불할 수 있고, 서사는 종료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현대 원혼서사는 자본주의적 현실을 근본적으로 전복하지 못한 채, 고통을 관리 가능한 서사로 봉합할 위험을 내포한다.

이러한 현대 원혼서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무사 노무진>은 수용자에게 양가적인 반응을 생산한다. 일부 시청자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노동 문제를 다루면서도 판타지적 설정과 유머를 결합한 방식에 당혹감을 표하기도 한다. 특히 리얼리즘 계열의 노동 드라마를 기대했던 시청자에게는 극의 톤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졌다는 반응이 확인되었다.<sup>24</sup>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형식적 완화가 있었기에 끝까지 시청할 수 있었고, 오히려 각 에피소드의 모티프가 된 실제 사건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반응 역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sup>25</sup> 이러한 수용 양상은 현대 원혼서사가 지닌 이중적

24 “평장히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 실화를 소재로 가져다 쓰면서도 판타지를 가미해 극의 분위기를 가볍게 끌고 가서 다소 당황했지만 그래도 적응하면서 쭉 보기에 나쁘지 않았다. 드라마 <송곳> 같은 느낌으로 가주기를 은근 기대했던 터라 다소 아쉽긴 하지만, 실화를 잘 버무려서 해당 사건들을 다시 찾아보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산재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영혼으로 찾아오는 설정이 괜찮을까 싶었는데 코미디 완급조절을 잘 해서 유쾌하게 볼 수 있었다. 진지한 주인공 양열으로 MZ유튜버인 처제커플이 굉장히 떠들어주는 것도 환풍한 듯. 그래도 가끔씩 교화적인 대사를 읊어대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노동환경이 조금이라도 좋게 바뀔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감수하련다.”, “귀신 보는 컨셉이 뜬금포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만하게 만든 건 확실함. 실화 사건들을 바탕으로 해서 감정적으로 자극이 되는 장면들이 많았고, 감동 포인트도 있음”, 네이버 엔터 <노무사 노무진> 평점/리뷰 중 일부, <https://m.entertain.naver.com/contents/broadcast/34107055/review> (접속일: 2026. 2. 10.).

25 “너무 무겁고 진지한 내용이라서 이런 코믹 판타지 설정을 이용한 것 같은데 나쁘지 않다고 본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노동 현실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 산업현장에서 어처구니없이 죽어나가는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그리고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님을. 이 드라마를 보는 동안, 그리고 이 글을 작

성격을 잘 드러낸다. ‘원혼’이라는 판타지적 요소는 ‘노동’이라는 무거운 주제 때문에 배제되었을 수 있는 관객을 서사 안으로 끌어들이는 진입 장치로 기능한다. 현대 원혼서사가 완결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보지 않으려 했던 죽음’을 최소한 인지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는 현대 원혼서사의 결정적 의의는 해원이나 성불 과정 그 자체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어떤 죽음은 원혼으로조차 호출되지 못한 채 사회적 가시성의 바깥에 머문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데 있다. 무진의 형처럼, 산업재해로 사망했음에도 분노하지 않고, 원혼으로 귀환하지 않는 죽음은 이미 신화의 대상에서조차 탈락한 상태이다. 이러한 죽음은 너무 익숙하고, 너무 일상적이며, 너무 오래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되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문제적인 죽음은 ‘원혼이 되는 죽음’이 아니라, ‘원혼으로도 호출되지 못하는 죽음’일 것이다. 이 지점에서 현대 원혼서사는 한국 사회에 깊이 자리한 ‘한(恨)의 정서를 다시 호출한다.

‘한’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으로 오롯이 느낄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며, 개인의 내면에 머무는 감정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폭력과 무력감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무속은 이러한 한을 풀어주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해 왔다. 굿과 같은 무속 의례는 망자의 억울한 사연을 풀어주고, 산 자의 아픔을 치유하며, 슬픔과 고통을 승화시키고 성불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무당은 굿판에서 한을 풀어주며 자신을 깔보던 사람들을 질책하기도 하는데, 이는 단순한 치유를 넘어선 정의 구현의 뉘앙스를 풍긴다. 무속이 한의 해소 기제로 기능하는 것은, 현실의 법 제도적 시스템이 이러한 불의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때, 초월적인 힘을 빌려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정의를 구현하고

---

성하는 동안에도 계속 노동자 사망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귀신의 한으로 표현한 것이 짝짝하지만, 다양한 산업 재해들과 사회 부조리 구조를 상기시켜 주어 좋았다.”, 네이버 엔터 <노무사 노무진> 평점/리뷰 중 일부, <https://m.entertain.naver.com/contents/broadcast/34107055/review>(접속일: 2026. 2. 10.)

심리적 위안을 제공하려는 사회적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즉, 무속은 ‘한’을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서 해소하는 것을 넘어, 굿이라는 공적인 의례를 통해 억울한 죽음을 맞은 영혼의 사연을 공론화하고, 살아있는 이들에게 대리적 정의 구현과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불의에 대한 간접적인 저항과 해소의 장을 마련한다. 이러한 점에서 드라마 역시 굿과 유사하게, 사연을 공론화하고,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대중의 좌절감을 해소하고, 이상적인 정의 실현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키는 문화적 기제가 될 수 있다.

〈노무사 노무진〉의 최종화에서 전태일 동상을 찾아가는 직접적인 장면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세상은 느리더라도 변화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제시한다. ‘성불’이라는 개념은 한국의 전통적인 ‘한’ 해소 방식과 깊이 연결되며, 사회적으로 외면받거나 제대로 애도되지 못한 죽음에 대한 집단적 치유의 욕구를 반영한다. 드라마가 성불을 통해 현실의 불의에 대한 상징적 해결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 제도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한을 대중문화의 영역에서나마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는 대중문화가 사회적 애도의 새로운 장(場)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드라마는 ‘보이지 않는 죽음’을 시각화하고 공론화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집단적으로 이들의 죽음을 인지하고 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현대 원혼서사가 지닌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한 비판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 자료

- MBC(2025), 〈노무사 노무진〉, 임순례·이한준 연출, 2025. 5. 30.~2025. 6. 28. 방영.  
 강진옥, 「원혼설화」,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웹사이트, <https://folkency.nfm.go.kr/topic/%EC%9B%90%ED%98%BC%EC%84%A4%ED%99%94>(접속일: 2025. 12. 19.).

- 네이버 엔터(2025), 「〈노무사 노무진〉(MBC, 2025) 작품 리뷰, <https://m.entertain.naver.com/contents/broadcast/34107055/review>(접속일: 2026. 2. 10.).
- 원희복(2015), 「(15) 전태일 분신 평화시장… 한국 노동운동의 순교자 ‘노동의 가치’를 일깨우다」, 주간경향 웹페이지, 사회 광복 70년 역사르포, <https://weekly.khan.co.kr/article/201506021355311>(접속일: 2025. 12. 17.).
- 행동하는 간호사회 성명서(2021), 「더이상 간호사를 죽이지 마라!」, 행동하는 간호사회 웹사이트, <https://actnownurse.com/statement/?bmode=view&idx=8911348>(접속일: 2025. 12. 19.).

## 논저

- 김석(2021), 「죽음을 넘어 애도의 커뮤니티스로」, 『생사학연구』 2,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
- 김성례(2018), 『한국 무교의 문화인류학』, 소나무.
- 김정은(2023), 「‘죽음-회귀’의 서사 구조로 본 사회적 해원의 의미: 〈아랑 설화〉와 〈재벌 집 막내아들〉을 중심으로」, 『생사학연구』 Vol. 4,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
- 롤랑 바르트 지음,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역(1997), 『현대의 신화』, 동문선.
- 박정순(1995), 『대중매체의 기호학』, 나남.
- 서유석(2017), 「원귀 서사에 나타나는 해원과 애도의 구조, 그 의미와 한계: 〈신거무 전설〉과 〈의적 강목발〉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Vol. 0, No. 55, 우리문학회.
- 송해리·김명희(2022), 「간호사 ‘태움’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한국사회학』 56(4), 한국사회학회.
- 이영미(2014), 「공포에서 해원으로: 1980년대 전후 영화 속 무당 표상과 사회적 무당의 탄생」, 『민족문화연구』 6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이채영(2018), 「영화 〈검은 사제들〉과 〈곡성〉에 나타난 퇴마 소재 스토리텔링 기법과 악의 이미지 연구: 전통 무속 요소와 오컬트 장르 특질의 융합적 재현 양상 분석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Vol. 74, 중앙어문학회.
- 정세정 외(2025),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길성(1999), 『새로 쓴 한국무속』, 아세아문화사.
- Jae Young Lee, Sungsu Lee(2021), 「폭염 재난을 경험한 실외노동자의 심리특성에 관한 연구」, 『Crisisonomy』 17.5,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원고 접수일: 2026년 1월 12일, 심사완료일: 2026년 1월 25일, 게재 확정일: 2026년 2월 8일

## ABSTRACT

The Mythological Semantic  
Effects of Vengeful Ghost  
Narratives in Modern  
Korean Drama

Park, Jinhee\*

Hong, Jaebeom\*\*

Focusing on “Oh My Ghost Clients” (MBC, 2025)

This study adopts Roland Barthes’s mythology as its theoretical framework to examine how the mythic signifying functions traditionally performed by Vengeful Ghost Narratives are transformed and reconfigured within the labor realities of contemporary Korean society, focusing on the television drama “Oh My Ghost Clients”. In traditional Vengeful Ghost Narratives, the notion of *yi-sang-sa* (unnatural or unjust death) functioned as a mythic sign that explained and managed ruptures in communal order. In contemporary ghost narratives, however, deaths such as industrial accidents and deaths from overwork — forms of “excessively normalized death” — are presented as new signifiers within discursive practices and come to operate as newly constituted mythic signs. This study draws attention to the paradoxical condition in which death is rendered increasingly invisible precisely because

---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nkuk University (First 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nkuk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such deaths are explained as “too natural” within the frameworks of law and institutions, statistics, and social conventions. As Barthes argues, mythic signification is not a fixed content but a process in which signifiers and signifieds are combined, displaced, and rearranged under specific historical conditions. From this perspective, “Oh My Ghost Clients” demonstrates a slippage of myth by retaining the traditional signifier of the vengeful ghost while overlaying it with new signifieds—namely, structural violence and the diffusion of responsibility repeatedly produced within contemporary labor sites.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argues that contemporary Vengeful Ghost Narratives do not merely reproduce the naturalization of past dominant ideologies, but instead function as a new mythic apparatus that opens a space for social mourning and for questioning responsibility.

**Keywords** Mythology, Oh My Ghost Clients, Vengeful Ghost Narratives, Social Mourning